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5일 월요일 음 12월 13일 (5물)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9℃, 낮 최고기온은 15℃ 내외로 전망된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30%	제 주	20%
30%	성 산	30%
20%	고 산	20%
20%	서귀포	30%

	해뜸 07:34		달뜸 14:38
	해짐 17:58		달짐 04:28
물때	만조 09:17		간조 02:16
	20:42		15:42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1/14℃
모레	맑음	5/11℃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미국서 1조1000억원 복권 당첨자 나와

3억200만분의 1 확률로 대박

미국의 메가밀리언 복권 판매기.

미국에서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세 번째 대박 복권 당첨자가 나왔다.

10억달러(1조1050억원) 당첨금이 걸린 미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미시간주에서 탄생했다고 23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행운의 주인공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식료품점 '크로거'에서 복권을 샀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작년 9월 15일 이후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10억달러까지 쌓였다.

이번 당첨금은 메가밀리언 역사상 두 번째였고, 다른 복권 상품인 파워볼까지 합치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역대 1위 당첨금은 2016년 1월 파워볼 15억8600만달러(1조7525억원), 2위는 2018년 10월 메가밀리언 15억3700만달러(1조6983억원)다.

이번에 복권 1등 당첨자는 30년 동안 연금 지급 형태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한번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1등 당첨자가 일시 수령을 택할 경우 7억3960만달러(8172억원)를 받게 되고, 세금을 내고 나면 5억3000만달러(5856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메가밀리언은 숫자 5개와 보너스 번호인 메가볼 등 모두 6개의 숫자를 다 맞혀야 1등에 당첨되는 구조다.

이번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3억200만분의 1이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백 금 탁
정치부장

코로나19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

2020년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을 맺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일 년 내내 지역 곳곳으로 퍼지면서 일상의 근간을 흔들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국내·외의 이동은 큰 제약을 받았고, 회사와 식당의 경영난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고, 노인들에게는 가까운 경로당 방문도 허락지 않았다. 미증유의 세상을 이어간 지난 1년은 코로나로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는 매일 늘었고, 정신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울·불안 등이 심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낳게 했다. 경제적 피해는 실업과 폐업으로 이어졌다.

흑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에 대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맞는 말이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올해는 코로나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감염병에 왜 취약한지, 직격탄을 맞은 산업구조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속에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돼야 한다.

코로나의 위기 극복은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지향점 이외에도 생태계의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의 시작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박쥐의 서식지 이동에 의한 것으로 무차별적인 자연 훼손에 따른 인과응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미래사회의 최대 화두다.

공교롭게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난 1월 20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핵심은 친환경 뉴딜정책 실현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고했다. 제주도 역시 이보다 앞서 제주형 '그린·디지털 뉴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민의식 개혁과 정책의 체계적 변화와 실현에 성패가 걸렸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도내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1173t(이하 잠정치 생략)으로 2019년 1240t에 견줘 67t(5.4%) 줄었다. 그러나 재활용품 배출량은 569t으로 1년 전 546t으로 23t(4.2%) 되레 늘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23만6104명으로 전년도보다 33.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제주도민의 쓰레기 배출량도 어마어마하다는 증거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를 이유로 들 수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제주지역의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배출량의 변동 폭이 평년에 비해 작아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입도객에 대한 환경세를 적용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당위성에도 위배된다. 고로 불필요한 생산·소비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도내 쓰레기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 1년간의 절망과 고통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전과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코로나는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불편한 동반자'다.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 올해 1년이 성패를 가름할 분기점이다.

열린마당

JDC와 함께하는 '섬, 그 바람의 울림'

이 상 철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부위원장

매년 8월 사람의 호흡이 빚어내는 소리를 제주의 유·무형적 자원과 융합시킨 가장 제주적이며 세계와 함께하는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가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하는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는 동시 개최의 어려움을 극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성공, 세계 유명 음악제와 콩쿠르 속에서 독특한 통합스타일을 구축했다. 한국전쟁의 어려운 시기부터 금빛 나팔소리로 도민들의 애환을 함께 한 제주관악은 이제 세계 젊은 관악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래 해마다 평균 세계 25국에서 4000여명의 음악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콩쿠르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의 인준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 초·중·고교 검인정 음악 교과서에 한국 대표 음악 축제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 이래 최초로 온라인 예·결선 및 비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롭게 시도된 관악제는 또 하나의 창작품으로서 대중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관악제와 경연의 융화를 통해 관악발전을 견인하는 제주형 음악제로 세계 속에 존재하며,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JDC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미는 단순한 지원·후원을 넘어 지역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JDC의 지원은 제주의 미래 성장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주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JDC와 함께하는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행해 나가길 바란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 보내기

강 창 준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매서운 세밑 한파가 기습해 역대급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추운 날씨에 심뇌혈관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증가해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효과가 종합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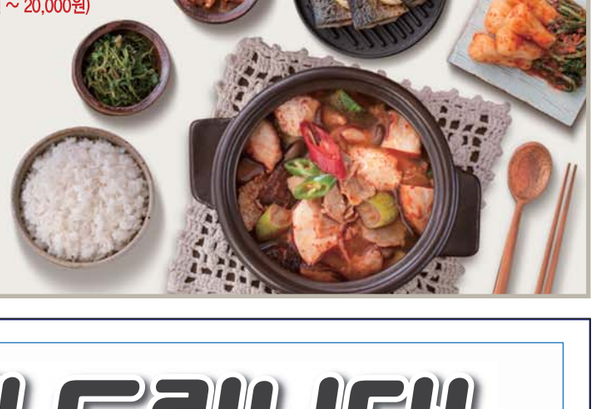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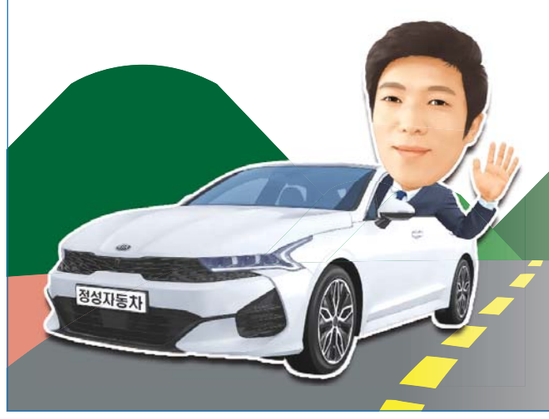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사망원인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땐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치료는 증상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치료를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치료를 위한 최소한 적기는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좋은 예후를 얻을 수 있다.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고령자들의 경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능한 매일 30분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하고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증상 발현 시 곧바로 병원에 가야한다.

평소 심뇌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사람은 제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을 권하고 싶다.

어머니 반찬 도시락
출장뷔페 – 결혼피로연, 돌잔치, 체육대회, 집들이, 야유회 각종행사 – 소규모행사 밥차 운영
도시락 주문받습니다. 정식도시락A 6,000원 | 정식도시락B 7,000원 | 한정식도시락 10,000원 | 일식도시락 10,000원 | 특정식도시락 15,000원 | 단체 도시락 (1인 5,000원 ~ 20,000원)
월 계약 반찬 납품
– 매일매일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
A 타입 : 국, 메인반찬 2종, 밑반찬 5종 1人 5,000원
B 타입 : 국, 메인반찬 1종, 밑반찬 4종 1人 4,000원
2인 이상 제주도 전역 납품가능
제사, 명절음식
차례상, 고사상
저희 조상님 모시듯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겠습니다.
반찬 종합 쇼핑몰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시는 반찬을 골라 주문하세요
어머니반찬도시락 http://www.foodmom.co.kr | 1566-9138 제주시 동한두기길 42-1 (용담1동 386번지)



차량 구매 고객님의 한해서 블랙박스 설치해 드립니다!
■ 중고차 매입/판매/수출/폐차/대차 문의해주시면 365일 연중무휴 정직하게 알아봐드리겠습니다.
- 부재중일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량 최고가 매입!
☑ 매입 평균시세보다 최대한 최고 매입시켜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전지역 어느곳이든 출장견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차량 연식/키로수만 아시고 계시면 금액 산출 가능합니다.
■ 차량해외수출 가능합니다.
- 폐차/매매상에서 매입을 꺼려하는 차량은 수출쪽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최고견적)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중고차 빠르고 정성으로 모십니다!
정성자동차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문 의 ☎ 010-3620-1810 팀장 이 건 영